

다산포럼



이도홍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모든 부문에서 심각한 퇴행을 하는 바람에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좋은 구도 입에도 민주당이 쇠신하지도, 좋은 정책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공전파동까지 일으킨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공공의제를 강행했다. 이에 편승하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했다. 하지만 두 정당 모두 보수정당으로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와는 거리가 멀고 불평등, 기후위기 극복 등 시대정신을 정적으로 담지 않고 있기에 누가 이기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성덕대왕(聖德大王, 재위: 702년-727년)이 몹시 그림다. 유교의 정치에 대해서는 대중들도 잘 알지만 불교의 정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잘 모른다. 성덕대왕은 전문성왕이 되어 불교 이상국가를 신라에 구현하고자 하였다. 유교에서 이상적 군주가 요순(堯舜) 임금이라면, 불교에서는 전문성왕(轉輪聖王), 곧 아소카(Asoka)왕이다. 그는 인도를 통일하여 마우리아제

총선 시즌, 성덕대왕을 생각한다

국을 건설한 대신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였으나 불교에 귀의한 후에 철저히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다르마(dharma)의 정치'를 펼쳤다. 성덕대왕은 그를 따랐다. "무기를 녹여서 보습으로!" 이 말에 정치의 이상이 함축되어 있지만 권력을 잡고서 이를 실천한 지도자는 인류 역사상 거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백제의 법왕, 신라의 법흥왕과 성덕왕이 이를 모도했고 성덕왕이 성공하였다. 성덕왕은 36년 동안 재위하면서 후대의 신라인들이 성군으로 칭송하고 경덕왕이 이를 기려 우리가 에밀레종으로 알고 있는 성덕대왕신종을 주조할 정도로 태평성대를 열었다.

'삼국사기'를 보면 성덕왕은 4년(705)에 모든 동물의 살생을 금하는 교서를 내리고 이어서 6년 뒤에는 가축의 도살마저 금하였다. 그는 불교 이상국가를 만들고자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을 온 나라의 온 백성이 지켜야할 규범으로 세우고 실천한 것이다. 역기능이나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미물마저 죽이지 못하게 한 당시에 신라인들의 마음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엄과 자비심으로 가득하였으리라.

'장아함경'에서 부다는 사람의 출신과 신분이 어떤든 중생은 모두 석가모니의 아들로 평등하다고 말한다. 성덕대왕은 21년(722)에 백성들에게 정전(丁田)을 주었다. 대신 귀족의 녹읍을 폐지하고 매년 직급에 따라 벼를 주었다. 16세부터 57세까지는 정(丁)으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부과한 당시의 체계로 볼 때 정에 해당하는 백성들에게 토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귀족들이 극렬하게 저항하였을 터인데 성덕왕은 강력한 권위를 갖고 이를 단행했다.

'유마경'의 가르침대로 약자의 아픔을 자신의 병처럼 아파하는 자비심으로 그는 사회복지적도 실시하였다. 5년(705)에 흉년이 들자 나라의 창고를 풀어 백성을 구제하고, 6년(706)에 재차 흉년이 들자 그 이듬해 정월부터 7월까지 입급 달 동안 매일 백성들에게 한 가씩 당 쌀 석 되씩 총 30만 500석을 나누어주었다. 17년(717)엔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들을 왕이 직접 위문하고 정도에 따라 물품을 하사하였다.

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 마당에 있는 성덕대왕신종의 명문을 보면 "성덕대왕께서는 덕은 산하처럼 드높았고 명성은 해와 달처럼 높이 걸렸다... 들에서는 근본이 되는 농사에 힘쓰며, 시장에서는 함부로 물건을 남용하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은 재물을 싫어하고 문재(文才)를 숭상하였다... 한 해라도 전쟁을 하여 백성을 놀라게 한 적이 없었다. 사방의 이웃 나라와 먼 나라가 오로지 왕의 교화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었지 일찍이 전쟁을 엿보는 일은 없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 정치학과 철학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하였는데, 그 수많은 정치인 가운데 왜 성덕왕과 비슷한 이조차 보이지 않는 것일까. 단 1명도 없는 것을 보면 개인의 탓은 아닌 듯한데 그럼 교육의 탓인가, 문화의 탓인가, 그런 이를 거세하는 정치 탓인가, 모든 이를 물신과 탐욕의 노예로 만드는 자본주의의 탓인가?

청춘 특특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김정연
동신대 언어치료학과 4년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진단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봤다.

과연 삶이란, 또는 죽음이란 그저 허망한 것일까? 나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 여기, 모든 순간이 빛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며 살기에는 내 삶이 너무 소중하다.

시인 정호승은 "인생은 여행"이라고 했는데, 그 여행의 끝인 '죽음'에 대해 나는,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리고 나는 왜 살아가는 걸까? 프리드리히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 때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직업 중 나의 적성에 부합하는 직업을 찾았고, 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있다.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의 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날마다 하루 분량의 행복을 느끼면서 말이다.

삶의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때도 삶이 의미 없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그 땀 먼 미래가 아닌 한 달 후에 죽음이 찾아온다고 가정해보았다. 삶의 선택지가 늘릴 만큼 단순해졌다. 소중한 사람을 자주 만나 마음을 표현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고, 부질없는 것들을 탐하느라 아등바등하지 않고, 내게 주

어진 작은 일들이 소중하게 다가왔다.

불확실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라는 말이다. '나 또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하루에 인생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기 때문이다.'

죽음은 결국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성찰을 낳는다. 죽음이 있기에 삶을 볼 수 있고, 삶이 있기에 죽음을 볼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존재하는 나 또한 엿볼 수 있다.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옛 로마에서는 시종에게 개신장군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죽음을 눈앞에 두며 삶의 제한성을 인지하고 그 '제한'이 주는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소중하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될 것이다.

때로는 '망각'이 행복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니체는 자신의 저서인 '도덕의 계보'에서 "인간은 본성상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다. 무의식 상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의식상에서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놓이는 것이다.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슈뢰딩거의 고양이와 같이, 죽지도 살지도 않은 그 중간에서 서서 무의식적으로 삶의 가치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아닐까.

기고

광주의 무등산에서, 대한민국의 무등산으로



강재우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장

"무등산의 아픔을 맨살로 감싸고 오염과 무질서의 난개발로부터 지켜낸 광주시민은 참으로 위대하다. 무등산이야말로 광주시민의 사랑과 애환의 장엄한 대서사시로 자손만대에 물려 줄 찬란한 영광이요 전설이다."(박선홍 저 '무등산' 제 7판 서문 중)

평생을 광주에서 나고 자라 무등산을 그 누구보다 사랑해 모든 것을 집대성한 고 박선홍 선생의 저서 '무등산'을 읽고 있다면, 선생과 광주시민의 무등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감탄하게 된다.

공단 직원의 눈으로 보아도 무등산은 여러모로 특색 있고 의미 있는 국립공원이다. 북한산, 계룡산, 팔공산과 더불어 대도시를 품고 있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도시형 국립공원으로, 광주시 대부분 교가에 '무등산'이 들어간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그 어는 국립공원보다 시민들에게 친근한 산이다. 그것뿐이라. 산 정상보다 하늘과 수심 미터 뺀은 서석대, 입석대 등 주상절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무등산에서만 접할 수 있는 절경이다.

무등산은 2013년에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올해로 11살을 맞이했다. 국립공원 시절과 비교하면 먼

적은 2.5배 이상, 생물종 수는 5127종으로 2배, 멸종위기종도 29종으로 3배가량 증가해 자연생태계는 더욱 건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수한 풍광과 자연을 품은 무등산을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2022년에 실시한 '국립공원 인지도 조사'를 살펴보면 무등산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61.2%로 전체 국립공원 중 15위에 머물렀다. 국민 10명 중 4명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인지 모른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그 이유가 무등산의 우수하고 독특한 생태환경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을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단어가 자연생태계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국립공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원시성을 유지한 장엄한 자연을 먼저 연상하게 된다. 즉, 국립공원을 대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이다. 안타깝게도 광주 시민조차 무등산의 생태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책 '무등산'에서도 자연생태 분야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무등산의 깃대종이 수달과 털조장나무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붉은박쥐와 2급인 하늘다람쥐와 한국곰다람쥐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행히 올해 무등산의 생태가치를 크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호 중

인 평두메습지가 그 주인공이다. 평두메습지는 수달, 담비, 삿 등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해 780여종의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목내습지이다. 2020년 집중호우로 물길에 훼손되면서 인근 경작지와 계곡에서 유입된 토사로 인해 망으로 변하는 등 큰 위협이 있었으나 다행히 이를 복원해 현재의 습지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에서 평두메습지가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크다고 인정할 경우, 국내 26번째이며 광주 지역 첫 람사르습지로 등록이 되는 성과를 거두어 무등산의 생태가치를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등산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단지 멋진 경관과 전망을 가진 큰 산뿐 아니라 그 곳에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도 주목하자. 그리고 건강한 자연생태가 무등산을 더욱 가치 있게 빛내줄 것임을 알아야 한다. 142만 명이 사는 대도시 근치의 자연 속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이 헤엄쳐 다니고, 여덟 가지 색으로 화려함을 뽐내는 팔색조와 긴 꼬리가 특색인 긴꼬리딱새가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상상해보자. 너털지대에 왕괴리다람쥐, 털조장나무라는 희귀한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상상해보자. 무등산의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지 않는가?

무등산은 더 이상 광주시민만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성이 가장 뛰어난 국립공원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도 그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社說

해남 '영농형 태양광' 지역소멸 대응 모델로

해남군 산이-마산면 일대에 국내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가 조성된다. 400MW라는 규모도 놀랍지만 무엇보다도 민관이 손을 잡고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집적화단지가 조성되는 곳은 영산강 3-1지구 간척지로 투자 규모는 1조원이다. 지역민과 영농특화단지로 구성된 4개 농업회사법인이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전남도는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인근에 있는 기업도시인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공급하게 된다.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100(RE 100) 사업에 따라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으로만 100%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 10조원 규모로 국내 최대인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로 선언했는데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가 투자 실험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적화단지 사업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단순히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밀

어서 유기농 조사를 생산하는 영농형이라는 데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전력 생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미래 농촌의 새 모델로 국내에서는 해남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상용화에 들어가게 된다.

태양광 사업은 '햇빛연금'이란 이름으로 이미 신안에서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투자자인 사업자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민들에게도 연금처럼 일정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인구 유입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해남 영농형 태양광도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농업회사법인에 햇빛연금으로 최대한 환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단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식량과 에너지를 수확하는 미래 농촌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규모도 크다니 데이터센터 등 국가 첨단전략사업과 글로벌 RE 100 기업 유치는 덩이다.

5·18민주화운동 왜곡해온 인사 공천이러니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을 한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도 변 변호사를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했다. 도 변호사는 2019년 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북한 개입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5·18 북한 개입은 5·18을 폄훼·왜곡해온 세력들의 단골 주장이다.

5·18기념재단은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 변호사의 공천을 확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즉각 도 변호사의 공천 취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도 성명서에서 "도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돼 있다고 지속적으로 왜곡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도 변호

사는 입장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5년 전 정제되지 못한 개인적 발언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도 변호사의 과거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당 차원에서 공문화하지 않고 일버무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초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이 우리 헌법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한다", "5·18 정신의 헌법 수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사뭇 다른 대응이다. 도 변호사 공천 사례는 그동안 5·18을 내세워 호남에 다가섰던 국민의힘이 본심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힘은 도 변호사의 공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당 안팎 인사들이 5·18에 대한 폄훼·왜곡 발언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처음 내놓아 주목받았다. 취임 이듬해인 2018년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개헌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었지만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비협조로 결국 무산됐다.

그때부터다. '5월 정신 헌법 수록'은 광주를 찾을 때마다 보수 정치권이 꺼내놓는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던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이러니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식 인천시의회의장은 지난 1월 시의회 의원들에게 5·18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됐고 지난 2019년에는 김순례, 김진태 등 국회의원들이 5·18 망언으로 정계를 밟기도 했다. 임지봉 서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2년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들을 추가해 헌법 전문을 개정해 나

갈 필요가 있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때가 됐다고 했다. 헌법은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헌법의 헌법'으로 헌법 본문의 각 조항들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다. 5·18 정신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요즘, 새로운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다. 보수 정치인들이 필요할 때만 주머니에서 꺼내쓰는 '정치판 공깃돌'이 아니다.

/김지을 정치부 부장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